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9>

네게도 내게도 하나가 있다

학승이 물었다.
 “명(明)상좌가 대유령에 쫓아가 6조를 만났는데 어찌하여 가사를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까?”
 조주 스님이 학인의 가사를 집어 올리면서 말했다.
 “그대는 이것을 어디에서 얻어왔느냐?”
 학승이 말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들어 올릴 수 없는 거야.”

問 大庾嶺頭趁得及 爲什麼提不起
 師拈起衲衣云 你甚處得者箇來
 學云 不問者箇
 師云 與麼即提不起

육조 혜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의 방에 찾아가서 하룻밤 <금강경> 설함을 듣고 즉시 깨달음을 얻었다. 그야말로 돈오(頓悟)이다. 이에 홍인 스님은 혜능의 깨달음을 증명해주기 위해 자신이 쓰던 가사와 발우를 주면서 남쪽으로 내려가 선법(禪法)을 전파하라고 당부했다.

혜능이 대유령에 이르자, 홍인 스님의 또 다른 제자 혜명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가사와 발우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혜능은 곧 가사와 발우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는데, 혜명이 아무리 들어 올리려 해도 들어 올릴 수 없었다. 혜명은 마음을 바꾸어 예의를 갖추고 불법을 물었다. 혜능이 설법해 주었는데 혜명은 언하에 즉시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주 스님이 가사를 들어 올리면서, “이것을 어디에서 얻어왔느냐?”고 물은 것은 가사가 나온 근원지를 물어봄으로 해서 질문한 것을 스스로 알게 해주려고 한 것이다. 누군가 가사를 주었을 것이고, 주는 그 마음이 어느 곳에서 나온 것인가 묻는 것이다. 이렇게 간혹 선문답에서 어떤 장소를 물을 때는 대부분 근원지를 묻는다.

그런데 학승이 선적 질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것은 곧 가사가 나온 곳을 모른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가사를 들어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스승의 가사는 가사가 나온 곳을 아는 제자만 물려받을 수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스승의 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이 선문의 규칙이다. 이러한 엄격한 불법을 잘 알고 있는 혜명이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 홍인 스님의 가사와 발우를 들어 올릴 수 있었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합하지도 않고 흠어지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에게도 그것이 하나 있고 나에게도 하나 있어.”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합(合)입니다. 어떤 것이 산(散)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합(合)하는 거야.”

問 不合不散 如何辨
 師云 你有一箇 我有一箇
 云 者箇是合 如何是散
 師云 你便合

불합불산(不合不散) 즉, 합하지도 않고 흠어지지도 않는 것은 자성(自性)을 말한다. 중생의 본자성(本自性)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합하지도 않

師云 識心見性是不錯路

식심견성(識心見性)은 중문의 큰 주제이다. 수행자는 가장 먼저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일명 식심(識心)이다. 행복과 불행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만족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정해진 것은 없다. 특히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마음의 진리를 크게 깨달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성을 보아야 한다. 일명 견성(見性)이다. 수많은 마음이나오는 곳은 근본 성품, 즉 자성(自性)이다. 자성은 만물의 근원이면서 인간사의 근원이다. 자성은 누구든지 갖고 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자성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생은 업식이 강해 자성을 보기도 어렵고 확철대오(徹悟大悟)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 못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성을 보고 깨달으면 사람이 순간 바뀌어 진다.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동안 고치지 못한 악습을 한 순간에 끊어내 버린다. 그래서 모든 선사들이 한 걸 같이 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식심견성하는 것, 이것은 인생을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

선(禪)의 모든 진리는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고 흠어지지도 않는다. 이러한 자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다.

조주 스님은 합(合)하면 곧 흠어지는 것[散]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르면 질문자는 할 말을 잃게 된다. 뭐라고 단정하면 합이 되지만, 그렇게 단정하면 동시에 틀러지기도 하므로 그것은 또한 산(散)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합은 곧 산이 되고 산은 곧 합이 된다는 말이니, 이러한 조주 스님의 관점에서 학승은 또 한 수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선(禪)의 모든 진리는 불구부정(不垢不淨)이라는 부처님의 한 말씀에 귀착된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이 진리는 모든 이론의 초석이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인생에 고뇌는 없어진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어긋나지 않는 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보는 것이 어긋나지 않는 길이야.”

問 如何是不錯路

학승이 물었다.
 “밝게 빛나는 구슬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빛났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비추는 일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도대체 무엇이 구슬이라 하는가?”

問 明珠在掌 還照也無
 師云 照即不無 還什麼作珠

빛나는 보배 구슬을 손에 쥔 것도 좋지만, 무엇이 ‘명주’라고 부르는지 그 주인공을 알고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 명산을 찾아가서 유람할 때가 있다. 아름다운 산을 보면 자연의 신비에 경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그때 그렇게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내 속에 누가 있어서 감탄하는가? 항상 그것을 알아내려고 해야 한다. 혹은 상을 타거나,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으면 그 순간 누가 있어서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를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칼 끝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선어록 해제 29
법문서귀(法門鈎匙)
김호귀 외래교수
동국대 선학과

<법문서귀>는 조동종 법맥에 속하는 담연원징(湛然圓澄)의 제3세에 해당하는 백암정부(白巖淨符, 栢岩道人, 位中淨符)가 강의 6년(1667)에 편찬한 것이다. 일찍이 임제종의 제7세에 해당하는 달관담영(達觀曇穎, 金山曇穎: 989~1060)은 <오가종파>를 통해 천황도오의 법계에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을 제외한 네 종파가 모두 마조의 법계에 속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것은 구현소가 쓴 <천황도오선사비>에 근거해 주장한 것인데 이후로 교몽당(覺夢堂)의 <교몽당종교오가종파서(覺夢堂重校五家宗派序)> 및 일암일동(日庵一東)의 <오파일적도(五派一滴圖)> 등을 통해 즐기치게 주장했다. 비은통용(費隱通容)의 <오등엄통(五燈嚴統)> 및 목진도민(木陳道忞) 등의 <선등세보(禪燈世譜)>의 범법설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조선시대 청허휴정의 <선가귀감>을 비롯해 환성지안의 <선문오종강요>에도 그대로 수용됐다. 나아가 일본의 호관사련(虎關師鍊)은 <오가변(五家辨)>을 통해 선종오가 모두를 마조의 법계에 포함시켜버렸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황당하게도 일찍이 서천 제27조 조사 반야다라가 보리달마에게 ‘그대 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출현하여 천하를 짓밟을 것이다’는 참언을 실현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망아지는 물론 마조도일을 가리킨다.

백암정부가 이와 같은 선종사의 오류를 비판하고 선종사상의 제문제제를 정리한 것이 <법문서귀> 및 또 다른 저술 <조동대통(祖燈大統)>(1672년)이다. 곧 천황도오의 법계에 대하여 달관담영 이래의 오류를 논파하고 도반이었던 원문정주(源門淨柱)의 <회원약속(會元略議)>을 지지해 조동종 법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후로 <법문서귀>에 후서를 붙인 석조대녕(石潮大寧)의 입장, <인천안목>의 후서에 들어 있는 <용담고(龍潭考)>, 덕암양종(德巖養存)의 <오가변정(五家辨正)>은 백암정부의 주장을 옹호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법문서귀>를 저술한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저 세상의 미치광이들이 하는 말이란 시(是)를 해치고 진(眞)을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 화(禍)는 비단 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및 후세에까지 미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변론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진실로 깨끗하게 해결해 방

비를 단단히 하고 위험을 피해 칼끝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천고에 변하지 않는 도가 하루아침에 어둠에 휩싸여 해 뜨는 곳이 없는 시절을 찾아내야만 역시 천하와 후세를 비방하는 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 법당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기에 내가 만부득이하게 그런 것이다.”

속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이 <법문서귀>는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 (1)제1서: 중각법문서귀병오가변정서(重刻法門鈎匙並五家辨正序)-덕암양존(德巖養存)(1690)
- (2)제2서: 법문서귀서(法門鈎匙序)-자양정심(自若淨深)(1669)
- (3)본문: 법문서귀(法門鈎匙)-백암정부(白巖淨符) 짓고, 자약정심(自若淨深) 교열
- (4)본문의 말미에 붙인 백암의 自序: 법문서귀유서(法門鈎匙有序). 정미년 9월(1607)
- (5)후서: 각량도성(覺浪道盛, 覺浪道成, 天界道盛)의 제자 대녕(大寧)의 후서(1668)
- (6)부록제일: ‘선통 김수시(禪通 劔是) 선사 화산계현(晦山戒顯) 선사에게 보내는 편지’ 및 ‘회산계현 선사 김수시 선사에게 답변하는 편지’
- (7)부록제이: 덕암양존(德巖養存)의 ‘오가변정(五家辨正)’은 호관사련의 ‘오가변(五家辨)’의 주장을 부정함.
- (8)부록제삼: 일암일동(日庵一東)의 ‘오파일적도(五派一滴圖)’ 및 소포 횡천수(小補橫川叟)의 ‘오파일적도(五派一滴圖)’ 후서(1485년 10월) ... 호관사련의 주장을 옹호함.

이에 백암정부는 천황도오는 가공의 인물이고 천황도오가 역사적인 인물임을 고찰했다. 그래서 <송고연주통집> <불조통기> <현오광경> 등에서 천

황도오를 남악 문자로 기록함에 반해, <설봉여록>과 더불어 <법문서귀>는 천황도오를 청원

조동종 법맥 백암정부 스님 선종사 오류 비판

“천황도오 가공·천황도오가 실제 인물”

문자로 기록하고 천황도오와 천황도오가 두 사람이 아니라 천황도오 한 사람 뿐임을 주장한다. 그 근거로 첫째,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근거로 언급해 천황도오는 낯선 인물임을 강조한다. 천황도오가 가공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9종의 문헌을 언급한다. 둘째, 일반적인 근거를 언급해 천황도오가 가짜임을 주장한다. 반면 천황도오가 역사적인 인물임을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다. 셋째, 오류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가지를 들어 배격한다.

이로써 천황도오의 인물과 그 법맥을 부정하고 천황도오가 진실임을 주장하는 주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도원의 <경덕전등록>(1004) → 불일설승의 <전법정종기>(1064 간행) → 백암정부의 <법문서귀>(1607) 및 <조동대통> → 득산거사 임흥연의 <명각선사어록> 서(1634) ... → 영각원현의 <용담고>(17세기) → 석조대녕의 <법문서귀> 후서(1668) → 덕암양존의 <오가변정>(17세기 말) 등이다.

바른정법.바른인연

부처님의 정법 (경전 및 조사어록)만을 고집하는 수행 남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터를 마련하여 대웅전(법당)을 건립하고자 하오니 불사에 동참할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재, 부적, 철학, 조류방생, 인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 등의 일체 기복을 사절하였으며, 시한부 암환자나 희귀병자, 신병등의 환자분들과 인간 방생의 인연을 짓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타 종교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울에서의 도량에서 소리 소문없이 정법의 기도로서 지난 십 수년간 책을 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분들이 병석에서 일어나 각자 새 삶을 얻어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현재는 천일기도 및 동안기 백일기도중)

불.법.승. 정법.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등

주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화 : 055)633-6555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기)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결업중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강좌 및 개강일정

- 서울2067) 1월 8일(토요일) 14시 | 신도림역2번출구
- 부산 317) 1월 9일(일요일) 14시 | 전포역5번출구
- 서울2077) 1월 11일(화요일) 14시 | 신도림역2번출구
- 울산 271) 1월 12일(수요일) 14시 | 신정동 호천빌딩뒷편
- 부산 327) 1월 13일(목요일) 14시 | 전포역5번출구
- 제주 187) 1월 13일(목요일) 19시 | CGV영화관뒷편
- 광주 207) 1월 21일(금요일) 14시 | 화정역4번출구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일이 잘 안 풀리시죠?”

-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구요?”
-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 “이유 없이 자주 아프시다구요?”
-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구요?”
-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구요?”
-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구요?”



유남 태대 영원장



장천 백구 빈원장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 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